

불자 세상보기



석길암 금강대 HK교수

‘막말 전성시대?’ ‘역시나 국감’ 며칠간 신문 지면이며 방송사 뉴스시간을 오르내린 단골 용어이다. 국민들은 한숨만 내쉬는 취재 아닌 취재보다가 줄을 잇고, 마침내 ‘국감무용론’과 ‘상시국감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그럼 언론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런 기사가 줄줄이 지면을 채우는 걸까? 쓴소리 내뱉자면, 천만에다. 때 민낯을 뿐이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딱 떨어진 격이다. 무노동에 받아쓰기만 해도 읽을거리가 넘쳐난다는 이야기이다. 제발 이제는 바꾸자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하지만 특정 시점만 되면, 곧 국회만 시작되면 반복되는 일상에 불과할 뿐이다. 언론 역시 부추기고 타성적으로 반응하는 모양새다. 그런 아쉬움의 한쪽 귀퉁이에 서서 국민들은 말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쉰다. 그리고 자기 감을 느낀다. 아마도 그런 국민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막말은, 쇼맨십은 아득한 절망일 수밖에 없다. 제발 우리도 얼굴 들고 좀 살자는 말, 어디 남부끄러워서 살겠다는 말이 저절로 내뱉어진다. 거기 보니까, 사람은 없고 멍멍이만 있더라.

어느 정도까지 대변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정국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느낄 만하고 내뱉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신문이며 인터넷이며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본 것이다. 아마 거기서 거기까지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된다.

그 막말해대고 쇼맨십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의원들은 누구 뺨속에서 나온 분들인가? 국민들의 투표권이라는 뺨속에서 나오신 분들이다. 그래서 더 거만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을 낳으

면 어떻게 키우는지 생각해보자. 노릇할 처법 진자리 마른자리 같이 뉘여가며 키운다. 조금이라도 눈을 뗄라치면 큰일이러도 날까봐 조금도 쉬지 못하고 밤낮으로 보살피며 키운다. 구순 녀름은 어머니라도 칠순 녀름은 아들에게 길조심 하라고 타이르는 게 바로 모정이다. 그만큼 관심과 애정으로 키우는 게 자식이라는 이야기이다.

의원님은, 다르게 말하자면, 관심을 못 받아서 버림받았거나 잊어진 자식에 다름 아니다. 못한 자식이기라도 하면 눈치라도 볼 터인데, 그만 저마다 잘난 점만 터없이 많아서 아담조차 치기 힘든 자식이다.

그런 자식을 길러 놓고는, 이제는 부모가 오히려 자식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다 못하는 꼬락서니에 다다른 꼴,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것의 모양새다. 그 되바라진 자식이 온갖 저 잘난 짓은 다하는데 단속할 방법도 없이 지쳐버린 부모의 모양새, 그것이 또 국민이다. 이래서야 집안 꼬락서니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고 해야겠다.

다행히 그 잘난 자식을 국민들은 4년

에 한번만 낳으니, 다음에 낳을 때 잘 낳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천만에 말씀이다. 부모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식이 달라질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제발 관심 좀 쏠자는 이야기이다. 옛 말에 관심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은 아이가 옳아가는 법은 없다고 했다. 관심 없이 툭툭 던지는 이야기는 비난이지 애정이 아니다. 더 되바라진 길로 가도록 만드는 채찍질일 뿐이기 때문이다. 한숨소리만 내지 말고, 관심 좀 가지자.

밥 먹고 퐁 누는 내 일상의 사소한 삶 하나하나가 정치와 절대 무관할 수 없다는 절대명제를 기억한다면,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막말 국회 막말 정치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란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 역시 탓하고 비난하는데 동승하기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 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불교의 정견(正見), 바른 견해 역시 그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상시 국감이니 하는 구체적인 처방전은 ‘관심’ 그 이후에야 거론할 일이다.

社說

근대 선지식, 독립유공자 조명 나서자

경허만공선양회가 9월 20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개최한 제7회 만공선사 학술대회에서는 눈길을 끄는 증언이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실문화재단 총재 이석 황손은 “만공 스님은 아버님인 의친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수덕사는 제2차 3.1운동의 비밀기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일제에 알려졌고 결국 의친왕은 서울로 강제 압송을 당해 연금됐고, 만공 스님은 한탄 속에 수덕사에서 정진했다는 게 이석 황손의 주장이다.

여러 증언을 살펴보면 만공 스님은 독립운동을 염원으로 양으로 지원했던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독립유공자의 선정은 투옥 등이 확인되어야 이뤄질 수 있어 만공 스님의 유공자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만당비밀결사를 조직해 독립 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진 우봉 스님 역시 속가 손자인 법주사 도봉 스님이 나서서 독립유공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은 모호하다. 8년 이상 독립운동 활동, 혹은 유고를 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1~3등급(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심사 결과만 공표될 뿐, 과정은 공개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투옥 등에 근거한 유공자 선정 기준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 역시 근대 선지식들의 활동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진관사에서 태극기 발견으로 백초월 스님이 조명을 받았듯이 종단은 근현대 선지식들의 행적과 역사적 역할들을 발굴해야 한다. 이것은 민족 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선지식들의 이름을 기리는 것이자 한국불교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학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종단이 근현대 선지식들에 대한 관심과 행정 발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WFB 유치 계기로 한국불교 위상 높이길

진각종이 2016년 제 28차 WFB 세계불교도우회 총회를 유치한다. WFB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태국서 열린 제85차 WFB 집행이사회의 내년 제 28차 세계불교도우회 총회를 진각종이 개최하기로 했다.

WFB는 전 세계 불교가 종파를 초월해 국제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취지로 1950년 스리랑카에서 창립됐다. 현재는 50개국 250여 불교단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불교단체다.

진각종은 회당대중사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서원하며 1958년 태국서 열린 제 5차 WFB 총회에 참석했으며, 2008년 일본서 열린 제 24차 WFB 총회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진각종 총리원장 회정 정사는 내년 9월에서 10월경 총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진각종 국제교류사의 첫 장은 WFB와의 일대 사인연으로 장식된다. 진각성종 회당대중사와 손제서 前 위덕대 총장의 주도하에 태국

방콕총회에 한국 종단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이것을 계기로 종단의 국제교류가 물결을 뜨게 된다.

이후 진각종은 WFB 활동에 관심을 두고 제 14차 스리랑카 총회(1984)에 원장장 총인인, 제 15차 네팔 총회(1986)에는 해일 총리원장, 제20차 호주 총회(2000)에는 성초 총리원장, 제 23차 대만 총회(2006)에는 회정 총리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이 같은 종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2006년 10월 회정 총리원장이 WFB 한국본부 회장으로 추대됐다. 말라라세케라 박사가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 불교들의 일치단결과 각 종파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WFB를 창립했듯이, 진각종도 내년 총회 유치를 통해 불교가 대사 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견들을 청취해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는 대회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발언대

화쟁을 화쟁하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화쟁문화아카데미가 9월 22일 서울 안국동 화쟁문화아카데미 강당서 ‘화쟁좌담회-화쟁(和諍)을 화쟁하다’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자들의 화쟁에 대한 이해와 현실 적용 문제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화쟁, 원용무애의 실천적 원리



다양한 경전들과 원용(原容)으로서의 불설(佛說)과의 관계를 체계화하는 원효의 해석학적 전략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각 개별 경전의 ‘부분적 진리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부분적 진리성과 불설(佛說)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다.

원효에 있어 각 개별 경전들의 다양한 주장들은 불설(佛說)의 전개로서 각기 부분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학파의 다름은 결국 불설로 귀일(歸一)된다는 점에서 그 본원적 동일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인위적 조작이나 자의적 가치판단이 개입됨이 없이 다양함에서 통일성을 보고 통일성 가운데서 다양함으로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원효는 현실세계의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의 세계나 깨달은 자의 관점을 요청하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각 개별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원용무애한 불이(不二)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효는 개합(開合)과 중요(宗要)라고 하는 그의 독자적인 해석학적 방법론을 통해 당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의 여러 교리적 정론들을 화해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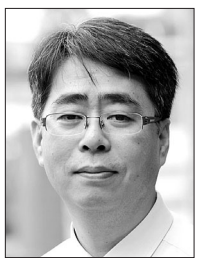
화쟁에 역사·사회성 결합해야



아래 여섯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쟁의 사회적 적용은 오류를 범한다. 첫째, 이 담론과 장(場), 맥락에서 저 담론과 장과 맥락으로 전이해도 보편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다른 담론과 장(場), 맥락으로 전이하면서 발생하는 차이를 인식하고 이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성으로 논증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논증과 해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적용하는 과정이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진리로 판별된 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논증을 해야함을 전제한다. 넷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할 경우 추상과 구체 사이에 변증법적 종합이 이뤄져야 한다. 추상과 구체는 일반과 개별, 보편과 특수로 대치되기에 변증법적 종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적용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런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해석이나 결과를 추출해야 한다. 여섯째, 방법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방법을 수정하거나 버려야 한다. 이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초역사적이고 탈사회적인 화쟁에 역사성과 사회성을 결합하는 것이다.

진실 추구가 곧 화쟁의 정의



화쟁이 확고하게 정의로 간주되는 것은 ‘진실’이다. 진실은 내편, 네 편을 넘어서서 추구해야 할 무엇이다.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정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의가 도리 수 있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 자체를 말한다. 약자에게는 진실이 되고, 강자에게는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름의 당사자들이 상대를 불의라고 낙인찍으며 배제하는 대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진실을 추구하는 데로 마음을 모은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한들 풀지 못할 까닭이 없다. 이왕이면 다수인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해결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조차 진실의 기반 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화쟁은 이렇게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굳게 믿는데서 출발한다. 화쟁과 관련한 여러 중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있다. 강자 쪽으로 힘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양편의 힘을 균등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화쟁은 곧 강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과 다를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첫째, 공정한 운동장에서 공평하게 정의할 것인가, 둘째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가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지사안내 전 북 지 사 : (063)910-8977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www.hyunbulshop.com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속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6, 여래수량품(21:15)	제23, 악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CD10-제24, 유물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건보품(22:19)	제18, 수화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재바달다품(15:54)	CD09-제19, 반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묘장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락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연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연불샵